제3부 진정으로 은혜로운 거룩한 감정을 뚜렷이 구별해 주는 표지들

3부 · 적극적 표지 12: 행위로 나타나는 신앙

『신앙감정론』 제3부 「진정으로 은혜로운 거룩한 감정을 뚜렷이 구별해 주는 표지들」 중 열두 번째 적극적 표지, 인쇄 540~639쪽

🧭 흐름 한눈에

에드워즈는 먼저 참된 감정이 낳는 삶을 세 가지로 정의한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전적인 순종, 그 일을 인생의 본업으로 삼는 부지런함, 어떤 시련에도 끝까지 이어지는 지속이다. 이어서 이것이 왜 당연한지 설명한다. 앞의 열한 가지 표지(성령의 내주, 사심 없는 사랑, 거룩함의 아름다움, 확신, 본성의 변화, 겸손 등)가 모두 실천으로 흘러가고, 하나님의 구속과 선택도 처음부터 '열매'를 목표로 했기 때문이다. 그다음 그는 더 강한 주장으로 나아간다. 실천은 이웃이 나를 볼 때뿐 아니라 내 양심이 나를 볼 때에도 '표지 중의 표지'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앙고백의 전제, 실천의 참된 뜻(영혼의 순종), 시련이라는 저울, 최후 심판의 기준 같은 여섯 논증을 세운다. 끝으로 “체험을 무시한다”, “율법주의다”라는 두 반론에 답한다. 실천은 체험의 핵심이고,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증거라는 것이다.

🪪 표지 카드

표지 12(적극): 은혜롭고 거룩한 감정은 그리스도인의 실천으로 작용하고 열매 맺어, 그리스도의 법에 온전히 맞는 삶을 평생의 업으로 삼게 한다.

참된 감정의 뿌리는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새로워진 본성이다. 그래서 그 감정은 반드시 삶을 움직인다. 말과 감정 표현은 위선자도 흉내 낼 수 있지만, 대가를 치르는 순종을 시련 속에서 끝까지 이어 가는 일은 흉내 내기 어렵다. 그래서 실천은 이웃의 눈에도, 내 양심에도 가장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

📜 절별 정리

📜 1. 표지의 정식과 첫째 의미: 전적인 순종

에드워즈는 이 표지에 세 가지 뜻이 담겨 있다고 밝힌다. 삶이 기독교 원리에 '전체적으로' 맞아야 하고, 그 일을 무엇보다 중요한 본업으로 삼아야 하며, 평생 이어 가야 한다. 첫째인 전적인 순종(universal obedience)은 몇몇 계명만 골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말한다. 그는 '한 가지쯤은 괜찮다'는 태도를 위선의 표시로 본다. 예로 아각 하나를 살려 둔 사울, 한 가지 일에서만 핑계를 댄 나아만, 세례 요한의 말을 기쁘게 들으면서도 헤로디아만은 놓지 않은 헤롯을 든다.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심으로 주님을 따랐기에 약속의 안식에 들어갔다.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기 전까지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듯이, 가장 사랑하는 죄를 내려놓기 전까지 그리스도는 당신의 사랑을 보여 주지 않으신다고 말한다. 또 전적인 순종은 '하지 말라'는 금지를 지키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적극적 명령을 행하지 않는 '태만의 죄'도 똑같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도둑이나 술주정뱅이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지 않는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용서하고, 자비로운 삶이 있어야 한다.

1. 순종은 일부가 아니라 모든 계명을 향한다
2. 남겨 둔 '한 가지 죄'가 위선을 드러낸다
3. 가장 아끼는 죄와 결별해야 한다
4. 안 하는 죄(태만)도 하는 죄만큼 무겁다
5. 착하기만 한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 **요한일서 3:3**
>
> 소망을 가진 자는 스스로 깨끗하게 한다: 표지의 출발점
>
>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 **요한일서 3:8**
>
> 죄를 짓는(죄 가운데 사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5:14

명한 대로 행해야 그리스도의 친구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야고보서 2:10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 선택적 순종 반박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고린도전서 6:9~10

어떤 종류든 불의한 자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함

9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29~30

오른 눈·오른손 같은 가장 가까운 죄도 잘라 내라

29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민수기 14:24

갈렙은 전심으로 따랐다: 전적인 순종의 본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이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마태복음 25:42

주릴 때 먹이지 않았다: 태만의 죄로 받는 정죄

>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 2. 둘째 의미: 신앙을 본업으로 삼는 부지런함

참된 그리스도인은 신앙을 남는 시간의 취미가 아니라 생계를 꾸리는 사업처럼 진지하게 한다. 신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주, 씨름, 싸움에 비유한다. 허공을 치듯 싸우거나 게으르게 달리는 사람은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에드워즈는 이를 가파른 시온 산 오르기, 거센 물살을 거슬러 생명수 샘까지 헤엄쳐 가기 같은 그림으로 풀어낸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 고백하면서 게으른 것은 공공연한 반역만큼 저주받을 일이라고 말한다. 게으른 종은 악한 종이기 때문이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은 채 급히 유월절 양을 먹은 장면이 이 진지함을 미리 보여 준다.

1. 신앙은 온 마음과 힘을 쏟는 본업이다
2. 경주·씨름·군사의 비유가 보여 주는 열심
3. 게으른 신앙고백은 반역만큼 위험하다
4.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디도서 2:14

선한 일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열심하는' 백성

>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3:13

“오직 한 일을 하노라”: 집중된 삶

>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을 하노니 뒤에 있는

마태복음 25:26~28

게으른 종은 악한 종으로 쫓겨난다

26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27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28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히브리서 6:11~12

부지런함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상속함

11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12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12:1

무거운 것을 벗고 인내로 경주하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출애굽기 12:11

띠 띠고 급히 먹은 유월절: 진지함의 예표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 3. 셋째 의미: 시련을 지나 끝까지

참된 성도는 온갖 시련에도 불구하고 평생 순종과 섬김을 이어 간다. 여기서 시련(시험)은 의무를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모든 일을 말한다. 죄를 짓도록 끌어당기는 유혹이 있고, 의무를 두렵게 만드는 고통·경멸·손실이 있다. 하나님은 일부러 시련을

싫어하고 내버리는 데까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섬기는 삶의 방식으로까지는 떨어지지 않는다. 회심 전과 후의 차이가 사라질 정도로 무너지지도 않는다. 가장 위험한 경우는 '나는 회심했으니 안전하다'는 생각이 느슨함의 이유가 될 때다. 옛 죄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자기 체험을 자랑하며 영적 교만에 빠지면, 쓸고 수리한 집에 더 악한 귀신 일곱이 들어온 상태가 된다.

1. 시련은 유혹과 고난 두 갈래로 온다
2. 성도도 넘어지지만 신앙을 버리지는 않는다
3. 회심 전후 차이가 사라지면 거짓 신호다
4. '나는 안전하다'는 생각의 방심이 가장 위험하다
5. 겉의 개혁 + 교만 = 더 나쁜 상태

> **갈라디아서 6:9**
>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라: 지속의 요구
>
>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 **로마서 2:7**
>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
>
>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 **히브리서 10:36**
> 인내가 필요하다
>
>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 **마태복음 6:24**
>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성도가 떨어질 수 없는 한계
>
>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야고보서 4:4

세상과 벗 됨은 하나님과 원수 됨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2:43~45

쓸고 수리한 집에 일곱 귀신: 교만한 개혁자의 결말

43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44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45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 4. 왜 은혜로운 감정은 반드시 행위가 되는가

에드워즈는 이 사실을 앞의 열한 표지에서 끌어낸다. 첫째, 은혜의 원천은 영혼에 연합해 내주하시는 성령이다. 그리스도는 성도의 마음을 무덤으로 삼아 죽은 구세주처럼 머무시지 않는다. 부활의 능력으로 일하신다. 반대로 거짓 감정은 조각상과 같다. 겉모습은 사람 같아도 생명의 원리가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돌밭의 씨처럼 뿌리가 얕다. 둘째, 참된 사랑은 자기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일 자체의 아름다움에 끌린다. 그래서 편식하지 않고, 이익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다. 셋째, 거룩함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룩하게 행한다. 성령이 주신 새 미각(거룩한 것을 달게 느끼는 감각)과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이다. 넷째, 신앙의 일이 진짜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 무게에 움직일 수밖에 없다. 다섯째, 본성이 바뀌었다. 씻긴 돼지나 댐에 막힌 강물, 위로 던진 돌처럼 억지로 누른 옛 본성은 결국 되돌아간다. 새 본성만이 평생 새 생명 가운데 걷게 한다. 그 밖에 겸손(교만은 거스르고 겸손은 순복한다), 어린양 같고 비둘기 같은 정신(십계명 둘째 돌판의 실천), 죄에 대한 예민함, 감정의 균형, 더 자라려는 갈망도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2. 거짓 감정은 생명 없는 조각상과 같다
3. 이익 때문에 믿으면 이익만큼만 순종한다
4. 바뀌지 않은 본성은 결국 옛 물길로 돌아간다
5. 앞의 열한 표지가 모두 실천으로 모인다

고린도전서 2:4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은혜는 힘이다

>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데살로니가전서 1:5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임함

>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4:20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음

>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린도후서 10:5

마음을 사로잡아 순종하게 하는 은혜

>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시편 110:3

권능의 날에 즐거이 헌신하는 백성

>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을 부인함 = 행함 없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로마서 13:8~10

사랑은 둘째 돌판을 다 이룬다

8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참된 은혜는 비활동적인 것이 아니다."

📜 5. 은혜는 처음부터 열매를 위해: 그리고 위선자는 끝까지 가지 못한다

경건과 행위의 관계는 샘과 물줄기, 해와 햇살, 생명과 맥박의 관계와 같다. 중생, 그리스도의 구속, 하나님의 선택 모두 거룩한 삶을 목적으로 한다. 농부가 밭을 가꾸는 목적이 열매인 것과 같다. 에드워즈는 성막 상징으로 이를 그린다. 순금 등대의 꽃 곁에는 언제나 열매 모양 장식이 붙어 있었다. 대제사장 겉옷 가장자리에도 금방울(아름다운 신앙고백의 소리)과 석류(열매)가 번갈아 달려 있었다. 신앙고백과 열매는 늘 붙어 다닌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열매는 성도에게서만 나온다. 위선자는 한동안 엄격해 보여도 옛 주인의 사슬이 끊어지지 않았기에 결국 다시 고개를 숙인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다. 재앙이 올 때마다 "내가 범죄하였다"고 고백하고 백성을 보내겠다고 했지만, 막상 제안은 "이 땅에서 제사하라", "멀리 가지 말라", "아이들은 두고 가라", "가축은 두고 가라"였다. 끝내 보내고서도 곧 후회하고 뒤쫓았다. 많은 죄인이 큰 죄는 끊되 작은 욕심은 남겨 둔다. 그러나 '소 발굽 하나'도 남겨서는 안 된다.

2. 등대의 꽃과 열매, 금방울과 석류는 하나다
3. 위선자는 억눌렀을 뿐 죄가 죽지 않았다
4. 바로의 협상 = 죄 일부만 내놓는 신앙
5. 소 발굽 하나도 남기지 말라

> **에베소서 2:10**
>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 받음: 창조의 목적
>
>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 **고린도후서 5:15**
>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가 그를 위해 살게 하려 함
>
>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 **요한복음 15:16**
> 택하신 목적은 항상 있는 열매
>
>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 **출애굽기 4:23**
> “내 아들을 놓아 나를 섬기게 하라”: 구원의 목적
>
>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 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 **출애굽기 25:31~40**

31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32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33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같게 할지며 34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35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36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

출애굽기 28:34

금방울과 석류가 번갈아: 같은 상징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 방울, 한 석류, 한 금 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다니엘 12:10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한다: 위선자는 끝까지 못 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출애굽기 9:27~28

바로의 거짓 고백: 두려울 때만 하는 회개

27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28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렛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 6. 실천은 이웃이 보기에 최선의 증거다

여기서 에드워즈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리스도인의 실천은 은혜의 여러 표지 가운데 '최상의 표지'이며, 남에게도 자기 양심에도 그렇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웃의 눈이다. 그리스도는 거듭 “열매로 알라”고 하셨다. 잎이나 꽃으로, 다시 말해 말솜씨, 체험담, 눈물, 열정적인 표현으로 알라고 하신 적은 없다. 바울도 히브리 신자들이 구원에 가까운 것을 가졌다고 확신한 근거로 체험담이 아니라 성도를 섬긴 사랑의 수고를 들었다. 요한도 가이오를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이유로 칭찬했다. 야고보는 말로 보이는 믿음보다 행함으로 보이는 믿음을 앞세운다. 이성도 같은 것을 가르친다. 사람은 충성된 신하인지, 참된 연인인지, 진실한 친구인지를 행동으로 판단한다. 세상과 끊었다고 말하면서 돈을 움켜쥐는 사람, 자기는 티끌이라고 말하면서 작은 비판도 못 참는 사람보다 말없이 내어 주고 견디는 사람이 더 믿을 만하다. 감정이 고양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면 저주받아도 좋다”는 말도 쉽게 나오지만, 그런 말은 값이 없다.

1. 그리스도의 기준: 잎과 꽃이 아니라 열매
2. 체험담·눈물·유창함은 기준이 아니다
3. 상식도 친구와 연인을 행동으로 판단한다
4. 고양된 감정의 서원은 값싸다
5. 말로 성도 흉내는 쉽고 삶으로는 어렵다

> **마태복음 7:16**
>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판단의 원칙
>
>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 **마태복음 12:33**
>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다: 나무와 열매는 분리되지 않음
>
>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나무는 각각 열매로 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5:16

빛을 비추는 방법은 착한 행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히브리서 6:9~10

바울의 확신 근거: 성도를 섬긴 사랑의 수고

9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10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요한삼서 1:3~4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인정받음

3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야고보서 2:18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요한복음 14:21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

>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위선자들은 성도들처럼 행동하는 것보다 더 쉽게 성도들처럼 말하게 된다."

📜 7. 이웃을 판단할 때의 세 가지 단서

첫째, 이 기준은 신앙고백을 전제한다. '열매로 알라'는 원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분별하라고 주신 것이다. 기독교를 부인하는 착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원리가 아니다. 고백에는 교리(예수가 메시아이시며 우리 죄를 지셨음)뿐 아니라 회개, 그리스도만 의지함,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를 사랑함, 자신을 온전히 드림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 고백하는 사람이 그 말뜻을 이해해야 한다. 다만 성령이 어떤 단계와 순서로 역사하셨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사도들은 성령이 전해 주신 '내용'의 고백을 요구했지 '방식'의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체험 이야기가 판단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임직 같은 경우), 그것을 입회의 필수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둘째, 여기서 말하는 실천은 '흠잡을 큰 죄가 없다'는 소극적 도덕성이 아니다. 산상수훈과 로마서 12장에 맞는 적극적 삶, 곧 원수 사랑, 혀의 절제, 일터와 안식일에서의 그리스도인다움, 손해를 감수하는 섬김을 말한다. 셋째, 그렇게 보여도 사람의 판단은 무오하지 않다. 마음은 숨겨져 있고 은혜는 흉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1. 열매 기준은 고백자에게 적용된다
2. 고백엔 교리+회개+전적 헌신이 들어간다
3. 회심 '단계' 설명 요구는 비성경적이다
4. 큰 죄 없음 ≠ 적극적 거룩한 삶
5. 이웃의 판단은 만족스러울 뿐 무오하진 않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마태복음 3:6

세례받는 자들이 죄를 자복함: 고백의 내용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마태복음 3:8

회개에 합당한 열매: 고백과 삶의 일치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도행전 2:38

회개하고 세례 받으라: 회개는 가시적 조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41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 내용의 고백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이사야 45:22~25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고백

22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23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24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25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 **신명기 26:17**
>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도를 행하겠다는 확언
>
>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 8. 양심에게도 증거: 여기서 '실천'이 뜻하는 것

성경은 실천이 남에게만이 아니라 내 양심에도 확실한 증거라고 말한다. 다만 여기서 '실천'은 몸의 움직임만 뜻하지 않는다. 시계 장치로 구제하는 조각상의 동작이나 경련으로 움직이는 몸을 순종이라 부를 수 없다. 순종은 영혼의 순종이고, 목적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내적 경건을 다 '실천'이라 부르면 뿌리와 열매의 구별이 사라진다. 에드워즈는 은혜의 작용을 둘로 나눈다. 하나는 묵상처럼 영혼 안에서 시작해 안에서 끝나는 '내재적 행동'이다. 다른 하나는 의지가 외적 행동을 명령할 때 생기는 '실천적 작용'이다. 제자에게 물 한 그릇을 주게 하는 사랑, 핍박을 견디게 하는 사랑이 그 예다. 양심에게 증거가 되는 것은 이 실천적 작용과 그것이 이끄는 행동이다. 산상수훈의 '듣고 행함'도 심령의 가난, 음욕을 품지 않음 같은 내적 작용을 포함한다. 하나님이 심장과 폐부를 살피고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말씀도 그렇다. 그러나 영혼과 몸은 연합되어 있다. 그러니 “마음은 예배로 향했는데 발이 술집으로 갔다”, “마음은 주려 했는데 손이 돈을 안 놓았다”는 변명은 터무니없다.

1. 실천 = 영혼의 결단이 이끄는 행동
2. 기계적 동작은 순종도 불순종도 아니다
3. 내재적 행동과 실천적 작용을 구별하라
4. 하나님은 행위를 보시며 마음을 살피신다
5. “마음은 그랬는데 손발이…”는 통하지 않는다

> **요한일서 2:3**
>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안다

요한일서 3:18~19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으로 마음을 굳세게 함

18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19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갈라디아서 6:4

자기 일을 살피라: 자기 점검의 기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시편 119:6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않음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마태복음 7:21~24

행하는 자는 반석 위의 집: 자기 점검으로 확장

2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4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요한계시록 2:23

뜻과 마음을 살피고 행위대로 갚으심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심장을 살피며 행위대로 보응: 행위는 내면을 포함

[9]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10]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사야 38:3

히스기야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함을 근거로 삼음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 9. 왜 최고의 증거인가 ①: 선택·시련·온전케 됨 (주장 1~3)

주장 1은 이렇다. 마음이 정말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는 실제로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할 때 드러난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과 세상 이익이 맞설 때 실제로 하나님을 고르는 행동이 그 시금석이다. 시내산의 이스라엘처럼 “듣고 행하겠다”는 의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행하는 마음이어야 한다. 죄 가운데 살면서 천국을 기대하는 사람은 심판주를 놀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셈이다. 주장 2는 성경이 신앙의 어려움을 '시련·시험'이라 부른다는 데 있다. 이름 자체가 그것이 신실함을 재는 저울임을 말해 준다. 불이 금을 가려내듯이, 하나님은 모르셔서가 아니라 우리 양심이 알도록 시험하신다.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고 하신 것도 아브라함의 위로를 위해서였다. 그리스도도 부자 청년과 “어디든 따르겠다”던 사람을 그렇게 시험하셨다. 건물은 바람 불 때, 밀은 키질할 때, 지팡이는 무게를 실을 때 알 수 있다. 주장 3은 성경이 은혜가 실천으로 '온전해진다'고 말한다는 데 있다. 나무가 씨나 잎이나 꽃이 아니라 열매로 완성되듯 믿음과 사랑도 행함으로 완성된다. 죄도 욕심, 잉태, 행동의 단계를 거쳐 '장성한다'. 무엇이든 완성된 모습에서 그 본질이 가장 잘 드러난다.

1. 고를 수밖에 없을 때 마음이 드러난다

4. 바람 부는 날 집, 키질할 때 밀

5. 은혜는 행함에서 완성되고 가장 잘 보인다

신명기 5:29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지키기를": 의도와 실행의 차이

>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 6:7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심

>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신명기 8:2

광야로 시험하신 목적은 마음을 드러내기 위함

>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1:7

불로 연단한 금보다 귀한 믿음의 시련

>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22:12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됨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요한일서 2:5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됨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야고보서 1:15

죄도 행위로 '장성함': 같은 완성 구조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 10. 왜 최고의 증거인가 ②: 성경의 강조·심판의 기준·모든 은혜의 시금석 (주장 4~6)

주장 4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른 어떤 표지보다 열 배는 더 이것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이로써 안다”고 표지를 줄 때 거의 언제나 실천을 든다. 형제 사랑도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다. 성경이 크게 말하는 것을 작게, 작게 말하는 것을 크게 다루면 위험하다. 주장 5는 “이로써 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자다” 같은 강한 표현이 바로 이 표지에 쓰인다는 것이다. 주장 6은 최후 심판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양심과 세상 앞에 판결의 의로움을 드러내실 때 쓰실 증거가 회심 과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몸으로 행한 것'이라는 것이다. 심판주가 쓰실 저울로 지금 나를 달아 보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실천은 '표지 중의 표지, 증거 중의 증거'다. 에드워즈는 천년의 모든 신학자가 자기 체험을 승인해 주는 것보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양심의 증언을 택하겠다고 한다. 이어서 그는 지식, 회개, 믿음, 신뢰, 사랑, 겸손, 경외, 감사, 갈망, 소망, 기쁨, 용맹이 각각 실천으로 증명된다고 하나씩 짚는다. 신뢰란 그분을 믿고 실제로 위험을 거는 것이다. 먼 나라 임금의 청혼을 받은 여인은 실제로 고향을

한다. 다만 타고난 기질은 고려해야 한다. 나쁜 기질의 사람은 같은 은혜를 받고도 덜 반듯해 보일 수 있지만, 회심 전후의 차이는 클 것이다.

1. 성경이 가장 자주·강하게 세운 표지다
2. 심판의 증거는 체험담이 아니라 행위다
3. 심판주의 저울로 지금 나를 달아 보라
4. 모든 은혜는 실천으로 진위가 드러난다
5. 경험은 삶에 미친 영향만큼만 존중하라

> **요한일서 3:14~18**
> 형제 사랑의 증거는 재물을 나누는 행함
>
> 14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15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6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7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 **요한일서 3:10**
> 의를 행치 않는 자로 마귀의 자녀가 드러남
>
>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 **요한일서 5:3**
> 하나님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
>
>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야고보서 1:27

정결한 경건: 고아와 과부를 돌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요한계시록 20:12

죽은 자들이 행위를 따라 심판받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고린도후서 5:10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디도서 1:16

시인하나 행위로 부인: 지식의 시금석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디모데후서 1:12

의탁한 분을 믿고 고난을 걸다: 신뢰의 실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리스도인의 실천 또는 거룩한 삶은 은혜의 모든 표지 가운데 최상의 표지라고 나는 주장하고 싶다.”

📜 11. 두 반론과 답, 그리고 이 기준이 주는 유익

반론 1은 “내적 체험이 은혜의 주된 증거라는 정설과 반대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에드워즈는 체험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먼저 인정한다. 그러고 나서 둘을 가르는 것이 잘못이라고 답한다. 몸을 움직이게 하는 의지 속 은혜의 작용이 곧 체험이다. 모든 실천은 체험이지만, 모든 체험이 실천은 아니다. 성경은 오히려 실천을 체험의 가장 핵심 부분으로 그린다(“이것이 나를 앎이 아니냐”). 시련 속에서 그리스도를 실제로 고르는 것이야말로 사실로 시험하는 '체험적 신앙'이다. 실천 없는 체험은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 성령의 증거와 인 치심도 대개 시련 속에서 은혜가 효력 있게 작용할 때 가장 밝게 주어진다. 순교자들의 기쁨, 환난 중의 즐거움, 핍박 속에 임하는 영광의 영이 그 예다. 은혜의 작용이 반복될수록 확신도 단단해진다. 부활 후 사십 일이 그랬다. 반론 2는 “율법주의이고 이신칭의를 해친다”는 것이다. 에드워즈는 행위가 은혜를 받는 '근거'가 될 때 값없는 은혜에 모순되는 것이지, '증거'가 될 때는 아니라고 답한다. 받은 돈을 보며 준 이의 친절을 떠올리는 거지는 은혜를 해치지 않는다. 그 돈을 대가로 내미는 순간 해친다. 성경은 값없는 초청과 거룩한 삶의 필요를 늘 나란히 둔다. 끝으로 그는 성경이 주지 않은 더 정교한 표지를 철학이나 체험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세련된 어리석음'이라고 경고한다. 성경의 기준을 따르면 위선자가 깨어나고, 체험담의 혼란과 영적 교만이 줄어들며, 세상이 신앙에 실체가 있음을 보게 된다.

1. 실천은 체험의 반대가 아니라 핵심이다
2. 실천 없는 체험은 없는 편이 낫다
3. 성령의 인 치심은 시련 속에 가장 밝다
4. 행위는 근거가 아니라 증거다
5. 성경에 없는 '더 정교한 표지'를 찾지 말라

> **예레미야 22:15~16**
> 가난한 자를 신원함이 “나를 앎이 아니냐”
>
> 15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16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앎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디모데후서 4:6~7

바울이 순교 앞에서 얻은 위로는 달려온 삶

6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7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베드로전서 4:14

욕을 받을 때 영광의 영이 임함: 시련 속 인 치심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로마서 8:15~18

성령의 증거가 고난의 문맥에서 주어짐

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요한계시록 21:6~7

값없이 주심과 '이기는 자'가 나란히

6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사야 55:1, 7

이사야 55:1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7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잠언 30:5~6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 말라: 인위적 표지 경고

5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6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고린도후서 12:6

말보다 손발이 앞서는 사도의 신중함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 오해와 반론

📖 용어

실천(practice)

영혼의 의지가 명령해서 몸으로 행하는 삶 전체이며, 단순한 몸의 동작이 아니다.

전적인 순종(universal obedience)

일부 계명이 아니라 모든 계명을, 금지와 적극적 명령 모두를 존중하는 순종이다.

해야 할 선을 하지 않아서 짓는 죄로, 행하는 죄만큼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시련(시험)
신앙의 의무를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유혹이나 고난으로, 마음의 진실을 달아 보는 하나님의 저울이다.

신앙고백자(professor)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참 신자일 수도 위선자일 수도 있다.

위선자
성도처럼 말하고 한동안 행동하지만 마음의 죄가 죽지 않아 결국 돌아서는 사람이다.

내재적 행동
묵상처럼 영혼 안에서 시작해 안에서 끝나는 은혜의 작용이다.

실천적 작용
의지가 외적 행동을 명령할 때 생기는 은혜의 작용으로, 이 장이 말하는 '실천'의 핵심이다.

칭의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일이다. 에드워즈는 그 근거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그리스도이지 행위가 아니라고 말한다.

성령의 인 치심
성령이 마음에 은혜를 심고 발휘하게 하셔서 자녀 됨을 확증하시는 일로, 시련 속 실천에서 가장 밝게 나타난다.

⚖️ 거짓과 참 ⌄

💬 청년의 삶으로 ⌄

✅ 이 장의 결론 ⌃

- 참된 은혜로운 감정은 전적이고, 부지런하며, 끝까지 이어지는 순종으로 열매 맺는다.
- 그 이유는 내주하시는 성령, 새 본성, 거룩함에 대한 사랑 등 앞의 모든 표지가 실천을 향하기 때문이다.
- 실천은 이웃의 눈과 내 양심, 그리고 최후 심판에서 '표지 중의 표지'다. 단, 여기서 실천은 영혼이 이끄는 순종이다.
- 행위는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받은 은혜의 증거이므로 이신칭의와 충돌하지 않는다.
- 성경이 크게 강조한 이 기준을 붙들면 위선은 드러나고, 영적 교만은 줄며, 세상은 신앙에 실체가 있음을 본다.

🎬 이 장을 쓰는 편

- 신앙감정론 23편 · 열매로 안다 · 표지 12 행위로 나타나는 신앙 (상) (준비 중)
- 신앙감정론 24편 · 나에게도 남에게도 증거 · 표지 12 (하) (준비 중)

빛다방 학습 노트 · 조나단 에드워즈 『신앙감정론』(부흥과개혁사, 정성욱 역)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표지 카드 문장은 1746년 영문 원문(공유 저작물)에서 새로 옮겼습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